

청정자연서 키운 버섯, 웰빙 열풍타고 수출 신바람



정남진장흥농협 농산물산지 유통센터(APC)에서 건표고버섯을 포장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표고버섯은 볶음과 전골·조림·전 등 각종 요리에 다양하게 활용된다. /장흥=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일 송이, 이 능이, 삼 표고, 사 석이'라는 말이 있다. 수많은 버섯 가운데 송이버섯의 맛과 향이 으뜸이고 능이버섯, 표고버섯, 석이버섯이 그 다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버섯의 귀족'이라고 불리는 송이버섯은 인공재배가 안 돼 귀하고, 값비싼 반면 '남버섯'인 표고버섯은 참나무에 종균을 집어넣어 재배하는 특성 탓에 상대적으로 도시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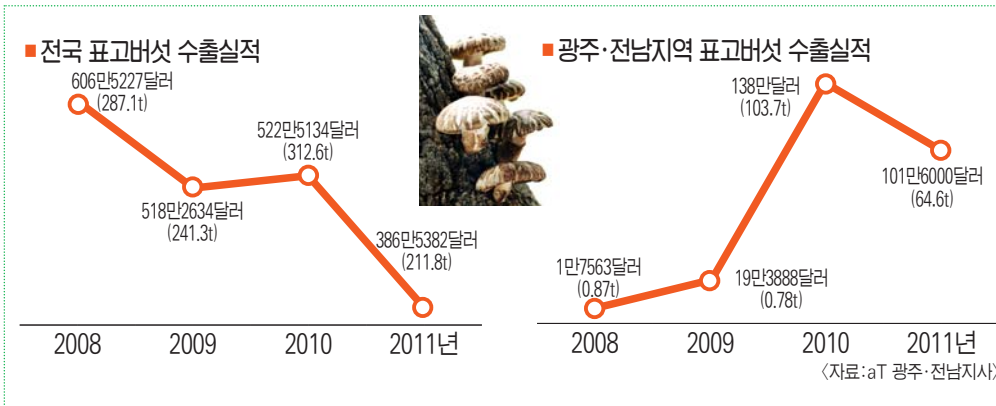
◇'웰빙식품' 버섯, 소비량 증가=고대 그리스와 로마인들은 버섯의 맛을 즐겨 '신(神)의 식품'(the food of the gods)이라고 극찬했다고 한다. 현대 들어서도 칼륨·인·나트륨 등 각종 무기질과 식이섬유 풍부가 풍부한 탓에 고단백·저칼로리 식품으로 여전히 각광받고 있다.

웰빙식품인 버섯은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와 영양학적 가치 등으로 1인당 소비량이 2000년도 2.75kg에서 2009년도 3.07kg으로 늘었다.

현재 국내 버섯시장은 연 1조2000억원 규모로 농림업의 2.5% 이상을 차지한다. 세계 버섯시장은 200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광주·전남지사에 따르면 전국 표고버섯 수출실적은 ▲2008년 287.1t(606만5227달러) ▲2009년 241.3t(518만2634달러) ▲2010년 312.6t(522만5134달러) ▲2011년 211.8t(386만5382달러)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표고버섯 수출실적은 ▲2008년 0.87t(1만7563달러) ▲2009년 0.78t(19만3888달러) ▲2010년 103.7t(138만 달러) ▲2011년 64.6t(101만6000달러)를 기록했다.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 각광...지역 수출 전년 동기 3배 늘어

장흥농협 소포장 상품화로 고부가가치...경제사업 성공모델

올해의 경우 5월 현재 456.6t(113만7000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28.6t·47만9094달러) 대비 3배 가까운 수출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해 3월 동일본 지진과 원전사고 여파로 인해 국내 표고버섯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내 표고버섯 생산은 장흥과 총북 영동지역에 집중돼 있다. 장흥지역은 지난 1976년 표고버섯 인공재배 생산을 시작해 1991년 산림청 '표고 주산단지'로 지정됐다. 현재 장흥지역에서 625 농가·총생산자단체(기업) 55·총법인화단체 20곳이 296.52ha에서 각종 버섯을 재배하고 있다.

버섯 종류별로 살펴보면 표고버섯이 296.52ha(시설재배 25.10ha·노지재배 267.37ha)로 가장 많고 느타리 3.46ha, 상황버섯 0.66ha, 영지버섯 1ha 순이다. 장흥지역은 연간 생표고 1200t, 건표고 400여t(전국 생산량의 42%)을 생산하고 있다.

◇일본 원전사고 이후 장흥버섯 인기=정남진장흥농협은 표고버섯 수출과 소포장 상품화로 경제사업 성공모델로 정착했다. 표고버섯 수매와 포장·판매·수출까지 직영체계를 구축, 부가가치 창출로 경제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정남진장흥농협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표고버섯을 유치지점에서 산지경매를 통해 전량 판매해

주고 있다. 지난 2009년 개장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는 유치지점에 출하되는 물량의 3분의 1 정도를 높은 가격에 매입해 소포장 상품화로 수출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산지경매는 표고버섯이 생산되는 봄(3~5월)과 가을(10~12월)에 집중 운영되고 있다.

유치지점에서 산지경매한 건표고버섯은 ▲2009년 222t(50억9700만원) ▲2010년 221t(50억5800만원) ▲2011년 204t(56억9600만원)에 달하며, 올 상반기에도 142t(42억3700만원)을 매입했다.

APC 역시 2010년에 21t(7억4500만원), 2011년에 79t(31억1400만원), 올 상반기에 63t(17억9800만원)의 건표고를 매입했다.

특히 정남진장흥농협은 지난해 건표고 4.56t(2억원)을 일본으로 첫 직수출한데 이어 상반기까지 3t(1억원)을 수출했으며, 연말까지 18t(9억원)을 수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일본 바이어가 장흥산 노지 원목재배 건표고버섯을 18t(9억원) 주문해 하반기에 선적할 예정이다.

정남진장흥농협 김용경(52) APC 센터장은 "지난해 일본 원전사고 이후 일본 바이어들이 중국산 표고보다 '안전한' 한국산 표고를 선호하고 있다"며 "앞으로 일본뿐만 아니라 대만, 홍콩, 중국, 동남아 등지로 표고버섯 수출시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kwangju.co.kr

KF 한국농어촌공사 후원

정남진 장흥농협 강경일 조합장

산지-소비지 연계 시스템 성과
작년 37억 매출...3년새 60% ↑

지난 29일 찾은 장흥읍 소재 정남진장흥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1층 선별실에 들어서자 마른 표고버섯을 분류해 포장하는 작업으로 분주했다.

정남진장흥농협은 지역 특산품인 표고버섯을 산지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내수판매 촉진과 소비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농민들은 우수 버섯생산에 전념하고, 농협은 유통·마케팅과 판매를 책임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지와 소비지를 연계하는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도시 소비자들이 손쉽게 표고버섯을 구입할 수 있도록 '소포장 상품화'를 추진. 2009년 22억1800만원, 2010년 28억3400만원, 2011년 36억9800만원 등 꾸준히 판매실적이 늘고 있다. 장흥산 표고는 소나무 아래서 원목재배해 맛과 향이 독특하고, 육질이 단단한 것이 특징이다. 또 지난해부터 홈페이지(www.jnjnh.com)에서 일명 '장흥 3합(台)' 세트를 판매해 히트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장흥 3합'은 장흥산 한우와 키조개, 표고버섯을 일컫는다. 이 밖에도 건표고버섯을 이용한 김과 캔음료, 분말상품도 출시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일본수출 물량 확대와 함께 해외시장 개척에도 발 벗고 나섰다. APC 직원들은 바이어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일본어 공부에도 열중하고 있다.

정남진장흥농협 강경일(55) 조합장은 "지난 3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동경 식품박람회'에 참가해 현지 바이어로부터 호평을 받았다"며 "현지 바이어 4명이 장흥을 방문해 노지재배 현황을 확인하고 수출물량을 상담하는 등 수출시장 확대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말했다.

이러한 해외 바이어들의 반응은 '지리적 표시제' 등록(2006년)과 '국제 유기인증' 획득(2012년) 등 정남진장흥농협이 끊임없이 장흥산 표고버섯 특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인 결과이다. 지난 2009~2010년 2년연속 3차례나 청와대 명절(설·추석) 선물로 선정돼 화제가 됐다.

강 조합장은 "APC내에 표고버섯 선별기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장흥에서 표고버섯이 많이 생산되지만 정작 전문 요리점은 없다. 앞으로 버섯요리를 통한 소비촉진과 판매확대를 위해 '버섯요리 축제'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Geumsoojang Hotel Ariyang House, featuring a large spread of food, hotel interior photos, and contact information.